David Turner 박사, 요한복음, 세션 22,
요한의 미래

© 2024 데이비드 터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세션 22, 종말론화된 삶 , 요한의 미래입니다.

요한복음 연구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장을 한 장씩 살펴보는 20개의 비디오를 제시하여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나오는 다양한 중요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려고 했습니다.

원론론이 두 책을 서로 연결하는 방식을 알아보고 요한복음에서는 창세기를 그다지 암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최초의 창조자이심을 확언하는 것, 대신에 예수님이 최초의 창조자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확언하는 것, 게다가 그가 창조의 갱신자 이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기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강의에서는 요한이 미래를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Life Eschatologized 라고 부릅니다 . 표지 슬라이드에서 여러분은 알브레히트 뒤러(AIbrecht Durer)의 매우 강력한 종말론적 이미지가 있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약 500년 전에 행해진 일입니다. 물론 대중적인 이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묵시록의 네 기사. 이런 점에서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인 종말론을 생각할 때 가장 자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우리는 요한의 종말론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내 생각에는 미래를 현재와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투영하기보다는 현재를 종말론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문을 간략히 설명하면서, 이 연구에서 우리는 예수 추종자들의 삶에 특별히 언급하면서 요한의 종말론을 요약해 제시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요한의 가르침은 현재에 대한 그의 가르침보다 덜 중요하고 관련성이 적습니다.

존의 관심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는 것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추어 현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될 것인지, 무엇이 될 것인지를 예상하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이미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부활은 마지막 날 인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요한이 5장 24절부터 29절에서 분명히 밝히듯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이 정보를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몇 가지 역사적 가정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작업 가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복음서나 서간서나 요한의 묵시록 어느 곳에서도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이 그 저자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이 다섯 작품을 모두 썼다거나 적어도 그의 직계 추종자들이 전수한 전통의 원천이었다는 견해에 대한 강력한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견해는 보수적인 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일반적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자료의 신학적 연속성은 저자의 주장보다는 현재 연구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의 복음, 서신, 묵시록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성, 유포, 수용이 서간서와 궁극적으로 묵시록의 배경이 되었다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의 시나리오도 그럴듯하다. 그 편지는 발전하는 요한의 가르침을 반영하고 나중에는 서술적이고 묵시적인 비난으로 완전히 표현된다. 복음과 편지 사이의 역사적 관계가 무엇이든, 묵시록은 요한 가르침의 후기 단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이미 복음에서 서술된 예수의 승리를 구상하고 그것을 요한복음에 나타난 특정 상황에 적용합니다. 편지들.

이에 대한 흥미로운 접근 방식 중 하나는 루크 티모시 존슨(Luke Timothy Johnson)이 그의 책 The Writings of the New Testament에서 제시한 접근 방식입니다. Johnson은 John의 복음에 대한 다양한 수용으로 인해 Demetrius가

단일 커뮤니티에 전달하는 패킷으로 세 개의 편지가 전송된다고 제안합니다. 셋째 요한은 가이우스의 충실성을 추천하고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반대를 폭로하며 데메트리우스를 지지합니다.

요한이서는 요한일서에 대한 표지나 소개로서 교회에 읽어주어야 합니다.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에 표현된 대로 장로들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도록 권고하는 강론입니다. 그 외에도 이 책들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흥미롭지만,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것은 그들의 주제적 상관관계와 연속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종말론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실현된 미래 또는 시작된 종말론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이다. 요한의 글에서 미래에 대한 연구에 직면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미래가 전혀 언급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래드는 그의 신약 신학에서 공관복음과 요한의 가장 피상적인 비교를 인용하면 요한의 예수는 종말론에 거의 관심이 없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Stephen Smalley의 의견은 더 미묘합니다. 네 번째 전도자는 마지막 것들에 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고 적어도 그에게 시간과 영원 사이의 중요한 상호 관계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의 어떤 가르침은 일반적으로 아직 이해되지 않은 일이 현재 실현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진정한 예배를 확립하기 위해 이미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요한일서 4장 2절과 5장 6절을 함께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는 또 다른 명제는 그의 구원 사역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23, 17:4, 19, 30, 요한일서 2장 8절, 3장 5절, 요한계시록 1, 5, 3, 21, 5, 5절과 같은 본문입니다. 요한의 종말론적 가르침은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악한 자를 이기었다는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3절과 14절, 요한일서 4:4, 요한일서 5:4과 5,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 이 모든 본문은 16장의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을 언급하고 그

말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33, 나는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요한이 말한 부활의 시간은 이미 다가왔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29절에 따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사실의 현재 실현에 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진술은 이 세상의 왕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16:11, 요한일서 3:8,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비교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요한복음 3장, 18장, 요한복음 3장, 36장, 요한일서 5장, 12장, 13장, 그리고 그 장의 19절과 같은 본문에 따르면 이미 심판 아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1서에 따르면 적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18, 22, 요한일서 4:3, 요한이서 7절.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래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이미 시작된 것에 대해 매우 극적인 방식으로 말합니다.

반면에 존은 미래에 대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후 그들에게서 오실 것입니다. 비록 이 본문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미래의 종말론은 적어도 이 구절이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추가로 나오는 미래 종말론 본문은 2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한일서 2장 28절, 3장 2절과 3절,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미래 오심에 대한 언급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2:5, 2장과 3장의 몇 가지 추가 텍스트, 그리고 물론 19장의 결론과 22장의 내용도 포함됩니다. 요한복음의 미래 종말론의 또 다른 측면은 예수의 적들이 요한계시록 6장 2절과 묵시록의 다른 본문에 따르면 한동안 그의 백성을 이기셨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그의 모든 적들을 이기실 것입니다(계 17장 14절).

요한의 가르침의 또 다른 미래 종말론 측면은 부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따르면 어떤 의미에서는 부활의 시간이 이미 여기에 있지만, 요한복음 5장은 계속해서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살아나거나 심판으로

살아날 부활의 시간이 오고 있다는 표현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따르면, 실제로 현재의 적그리스도가 있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미래의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요한은 또한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며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확신을 가지고 심판의 날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분야에 대한 요한의 가르침의 복잡성은 CH와 같은 학자들을 이끌었습니다. Dodd와 Rudolf Bultmann은 John의 미래가 이미 현재 완전히 실현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Dodd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됨에 따라 초기 기독교인들이 원시적인 미래적 묵시적 종말론을 영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는 보다 미묘한 신비로운 의미로 승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불트만의 비신화적인 실존주의 의제는 종말론적인 세계의 종말을 포함하여 기적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종말론을 진정한 개인의 존재로 이해하고 요한복음의 미래적 텍스트를 나중에 삽입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von Walde의 최신 작업도 비슷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네 번째 복음에 세 가지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사항들은 믿는 공동체가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 죽음 너머의 신자들의 영적 존재로 이어지는 첫 번째 단계에서 종말론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며, 이는 세 번째 단계인 신자들의 미래 육체적 부활로 이어진다.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 견해는 전형적으로 전통적인 세대주의자들에 의해 표현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전적으로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Charles Ryrie는 요한 종말론 연구에서 복음과 편지의 역할을 경시하면서 요한 종말론이 주로 묵시록에서 발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술은 엄격하게 미래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가정합니다. 존 월보드(John Walvoord)는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의 초림 중에 어떤 의미로 존재했음을 인정했지만 계속해서 그의 오심과 관련된 희망과 약속, 기대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포함하는 종말론은 실현되지 않았다. 약속된 종말론적 축복을 조금도 깨닫지 못한 채 약속된 강림에 대한 Walvoord의 견해는 완전히 미래 지향적입니다. 마찬가지로, Alva J. MacLean은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장까지를 다루면서 영적 중생의 현재 시간을 육체적 부활의 종말론적 시간과 너무 엄격하게 분리하여 예수께서 왜 후자의 관점에서 전자를 설명하셨는지 궁금해합니다.

신약 신학의 더 큰 맥락에서 이러한 종류의 미래주의는 요하네스 바이스(Johannes Weiss)의 일관된 종말론 또는 결과적 종말론이라고 불리는 것과 유사성을 갖습니다. 전반적으로, 신학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신약성서학은 이러한 전부 아니면 전무의 접근 방식에 모두 저항해 왔습니다. 신약성서 종말론의 현실화되고 미래적인 측면을 모순적이고 교정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고 상호적인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관복음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뚜렷한 강조점으로 이해됩니다. WF 하워드(Howard)는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주석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가르침은 그 영광이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나타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FD Moul은 John이 개인의 종말론을 강조한 것이 그로 하여금 실현된 강조를 하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 대해 말하면서 루돌프 슈나켄버그는 요한만큼 요한의 종말론적 계시의 의미를 더 잘 파악한 사람은 없으며 요한이 현재 심판을 강조하는 것은 미래의 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미안하지만 미래의 심판을 부정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완성합니다. David Aune은 요한 종말론의 실현된 측면이나 신비로운 측면을 제의적 배경으로 추적했습니다. WG Kummel은 요한의 구원의 현재 현실로 이어진 신성한 구원 행위의 일부로서 약속된 미래의 완성에 대한 희망의 실질적인 필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CK Barrett은 현재에 대한 요한의 강조를 인정했지만 요한이 소위 생명의 떡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44절, 53절과 같은 본문에서 어느

정도 마지막 종말론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온하르트 고펠트는 전자를 궁극적으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것으로 보고, 후자를 전자의 궁극적으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표현으로 봄으로써 네 번째 복음에서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켰습니다. 무디 스미스(Moody Smith)는 요한복음에서 구원은 현재의 현실일 뿐만 아니라 그 존재로 인해 미래는 이미 희망이 아니라 확신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프랭크 틸만(Frank Thielman)은 요한이 현재에 대해 강조하는 것을 신약성서에서 특이한 것으로 묘사하지만, 박해 중에도 인내의 필요성에 대한 요한의 상응하는 강조를 미래의 종말론이 요한에게 신학적 필요성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토마스 슈라이너(Thomas Schreiner)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언어를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특성으로 활용함으로써 신약성서 신학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크레이그 케스터(Craig Kester)는 예수님의 오심을 미래의 희망과 현재 현실의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궁극적이고 결정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간의 균열로 묘사합니다.

신약 성서 신학에 대한 GK Beale의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시작된 종말론적 현실과 완성된 종말론적 현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창조의 갱신을 시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성경 신학자들에 대한 이러한 조사에 비추어 볼 때,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완전히 실현되거나 완전히 미래가 아닌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둘 다 현재에 부분적으로 실현되었지만 미래에 완전히 실현될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신약성서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미래 현실의 윤리적 수직적 현재 성취와 동일한 현실의 종말론적 수평적 미래 완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르침 을 설명할 때 취임이라는 용어는 실현된 용어보다 더 중요하고, 더 적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취임한 이 용어는 아마도 zick 에 대해 말한 Joachim Jeremias의 독일어 용어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현실화하다 내 생각에 종말론은 대략적으로 실현의 과정에서 종말론과 같은 것으로 번역될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미래주의 종말론은 그리스도의 죽음, 삶, 죽음, 부활,

그리고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영의 강림의 강력한 영향에 대한 요한의 강조를 생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요한일서 2장 8절, 21:4, 20:27과 같은 본문입니다. 엄격하게 실현된 종말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일을 마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생략합니다. 요한의 종말론은 이미 있는 것과 아직 없는 것을 연결하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이미 경험한 종말론적 삶은 영으로 그들 안에 거하며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비할 힘을 준다고 한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6장 11절까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암시(요한복음 17장 14절), 21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 등이 있습니다. 현재의 현실로서의 영생은 그것에 기초한 미래의 완성을 가정합니다. 위에 제시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요점에 이 접근 방식을 적용하면 신뢰할 수 있고 놀라운 신학적 관점이 나타납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진정한 예배를 확립하기 위해 아버지에게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추종자들을 위한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며, 그런 다음 그들과의 관계를 완성하기 위해 땅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고 세상과 그 임금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의 추종자들은 믿음을 통해 이 승리에 참여하지만, 그들은 그분의 궁극적인 옹호와 승리에 참여하기 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심지어 예수의 적들에게 일시적으로 압도당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죽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신자들에게 그 생명이 미래에도 영속할 것을 보장해 줍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는 보상이나 형벌을 위해 모든 인간을 완전히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미래를 묘사하는 요한의 주제를 유익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짧은 연구를 위해 그러한 주제를 선택하려면 어려운 방법론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죽음, 영생, 부활, 천국,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는 WR Cook처럼 요한의 가르침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이 연구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관련성이 높은 몇 가지 요한복음 주제만 다룰 것입니다. 첫째, 아직 여기에 오는 시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넷째, 창조의 갱신이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몇 가지 종말론적 주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미 오고 있는 그 시간, 이미 여기에 오고 있는 시간을 살펴봅니다. 비록 4복음서에는 때라는 단어가 약 25번 등장하지만, 요한복음 4장 23절과 5장 25절에 나오는 때가 오나니 지금이니라라는 말은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두 번의 경우에서 이 인상적인 표현은 조지 래드(George Ladd)가 만든 용어인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미래의 존재를 요약합니다. 궁극적인 종말론적 완성의 전조로서 예언적 약속의 현재 성취.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메시아 예배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인의 그리심 사이의 역사적 경쟁을 초월한 예배(요한복음 4장 21~25절) 여인은 예수님의 예언적 정체성을 통찰력 있게 인식하고 그리심 산에서의 사마리아 예배와 예루살렘에서의 유대인 예배 사이의 역사적 분열을 암시했습니다(요한복음 4장). 4절 20절. 예수께서는 그 시점까지 예루살렘의 중심성과 구속사를 솔직하게 단언하셨지만, 현재의 하나님의 움직임은 예배의 장소보다 예배의 방식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요 4:21). 예수님은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유대 교회와 유대인 예배의 메시아적 갱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여 모든 민족, 유대인, 사마리아인, 온 인류가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요한복음 2장 17절).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모든 인류에게 다가가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요한복음 1장 9절, 3:16). 요한복음의 다른 많은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생각해보면 예수는 우리 죄 곧 유대인의 죄만 위한 화목제물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라.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는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모여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의 다른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이미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참된 영적 예배의 시간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실 때,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이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이전 여행에서 성전 청소로 인해 갈등을 겪은 것과 마찬가지로 당국과도 충돌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안식일 사역을 아버지의 끊임없는 활동과 연결시켜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셨으며,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아버지의 행동을 반영한 것이며,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심판하는 일을 자신에게 맡기셨다고 단언하셨습니다(요한복음 5:16). 23을 통해.

그러한 표현은 일반적으로 미래의 부활과 마지막 날의 심판을 언급하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 에게 이미 생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 그를 영접하는 자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마지막 날에 정죄에서 벗어나는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말론적 심판의 시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메시지를 듣고 영생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존재합니다(요한복음 5:25~27). 윤리적 영적 내적 쇄신의 이 현재 시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생명이나 심판으로 일으킴을 받을 육체적 부활의 미래 시간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요한복음 5:28, 29). 이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예상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에 관해 마르다와 나눈 대화는 다가오는 현재의 시간에 관한 가르침의 관점에서 가장 잘 이해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 의도적으로 베다니에 도착하시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그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을 비교하여 마지막 날에 자기 오라비가 궁극적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실제로 확증합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대한 마르다의 믿음을 인정하시지만 더 심오한 진리를 강조하십니다.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의 그분의 메시아적 정체성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생명을 얻었고 결코 죽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는 무덤을 초월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1절부터 29절까지에서 이미 가르치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가올 날의 새벽, 예수님의 빈 무덤을 기대합니다. 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때가 오나니 지금이로다라는 놀라운 표현은 하나님의 미래의 구속 사역의 현실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경험할 생명의 현재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 비록 부분적이지만 진정한 구원의 성취는 미래의 종말론적 완성이라는 가정된 현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번째 핵심 종말론적 주제는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는 방식입니다. 비록 넷째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자주 언급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요한의 가르침에서 미래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1:14, 1:51, 3:13 및 기타 여러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인으로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8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학습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이 말에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배경을 고려할 때, 그는 왕국을 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의 장래 축복, 그들에게 약속된 땅에서 그들을 그분의 은총으로 회복시키고, 그들의 적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선지자들의 약속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왕국 자체에 대한 니고데모의 가정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의 국가주의적 가정에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8:33-38에 따르면 예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려면 변형적인 초자연적 탄생과 그에 따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12, 요한복음 3:3-10, 요한복음 6:14-15 및 기타 본문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요한의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현재 사역을 초월하며 미래에 완성될 것이라는 견해와 일치합니다. 논의되어야 할 세 번째 주요 종말론적 주제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요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메시아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요한 1서 2장 28-33절과 비교하여 장래에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요일 2장 22절과 23절)은 주로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6장 33절에 나오는 설교에서 강조됩니다. 마지막에는 17장의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약속된 재림은 많은 학문적 논의로 이어지는 모호함을 제시합니다. 여기서는 간략한 요약만 가능합니다.

14장 1-6절에서 제자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후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아마도 21절 22절과 23절과 비교될 수 있으며, 종말론적으로 그분의 미래 재림에 대한 언급으로 가장 잘 이해될 것입니다. 메시야 왕이시며 제자들을 데려가서 그와 함께 거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미래 지향적인 언어는 성령과 제자들이 현재, 현재 아버지의 면전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약속은 14장 28절과 29절, 16장 28절에 암시된 것으로 보인다.

14:18-21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고아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복음서 후반부 20장과 21장에서 설명되는 부활 후의 출현을 언급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16:16-24 에 언급되어 있다. 아버지와 함께 오시며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아마도 돕는 영의 오심을 약속하는 구절들(14장, 15-17절, 25, 26절, 15:26)과 함께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27, 16:7-15.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시키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그들이 자신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20장 22절, 23절). 성령의 그리스도 중심 사역은 회고적이고 전망적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게 하고, 장래 일을 가르치며 그들의 사역을 통해 세상을 책망합니다.

따라서 보혜사 사역은 네 번째 복음서의 서술 범위를 넘어서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의 출현을 계속한다. 예수님의 부활 후 오심과 성령을 통해 아버지와 함께 제자들에게 임박한 오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재림 전에 닥칠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다락방 담론은 작별 인사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지속적인 변화된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계속하라는 권고임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논의하고 싶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종말론적 주제는 창조의 갱신이다. 이미 와 있는 다가오는 시간에 대한 요한의 신학에 대한 다소 무시된 예가 요한복음 1장 1-18절의 서문에서 발견됩니다. 이 장엄한 본문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기존의 사르 코스 , 즉 육화되지 않은 창조자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성육신한 창조자, 엔으로 제시합니다 . 사르코스(sarkos) , 육신의 창조자, 하나님의 계시자.

요한복음 1장 1-3절은 말씀을 만물의 창조주로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은 잠재된 요한의 새 창조 신학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계시자로서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이는 1장 12절과 13절의 로고스에 있는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생명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이 남아 있는 방식(요한복음 3장)을 묘사하기 위해 빛과 어둠의 언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16-21, 그들은 어둠 속에 남아 있습니다.

생명과 빛인 로고스로서의 요한의 묘사는 예수님을 창조의 갱신자로 강조합니다 . 계시자로서의 말씀에 대한 요한의 가르침은 요한복음 1장 14-18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강조되었으며, 출애굽기 33장과 34장, 특히 34장 6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이

명시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은 서신적 논증, 로마서 5:12-21 및 기타 본문에서 구원이 새로운 창조로 묘사되는 아담-그리스도 종말론적 비유는 네 번째 복음서의 저자에 의해 전달되기도 합니다. 주석에서는 요한복음 1장의 다양한 세부 사항의 창조 의미에 대해 개별적으로 관찰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제를 확장하여 다루는 경우는 비교적 드뭅니다.

일부 주석과 기타 연구에서는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서 7일을 발견하는데, 이는 창세기 1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동산에 대한 언급에서 낙원 모티브의 증거를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14절과 19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창세기 2장 7절에 대한 암시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오는 빛의 은유적 단어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을 새 창조 본문으로 이해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요한1서는 또한 빛과 생명을 연관시킨다. 어둠 속에 살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그들이 새 창조의 일부가 아님을 입증합니다. 현재 하나님의 빛이 사탄의 어둠을 잠식하는 것은 윤리적 이원론과 진보주의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창조 갱신, 요한일서 2장 8절부터 11절. 요한일서 2장 13절과 14절은 신자들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들, 그의 말씀이 빛을 가져오는 자들로 언급함으로써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상기시킨다. 존재로.

게다가 요한의 묵시록은 예수의 창조 갱신에 관한 요한의 신학에 기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으로 예수를 묘사하는 것은 창조의 갱신 위에 높임을 받은 머리로서 예수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20장에서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과 관련하여 옛 뱀으로 묘사된 사탄의 반대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보좌에 계신 창조주께 드리는 찬양은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양에게 드리는 찬양과 짝을 이룬다. 보좌실 장면의 마지막에는 보좌에 계신 자와 어린양이 동일한 영광을 받는다. 찬양은 피조물에 대한 영원한 지배로 정점에 이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6장에서는

천사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고 심판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맹세합니다.

원시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은 그에게 창조의 종말론적 정화자가 될 자격을 부여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질 것이기에 땅에 사는 자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리자는 요한계시록 19장, 13장의 로고스이다.

궁극적으로, 악한 성 바벨론의 멸망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로워짐에 따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강림하는 길을 준비합니다(계 3:12, 21:1, 그리고 다음 비교 베드로후서 3:13). . 그러한 표현은 이사야 65:17-66을 생각나게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여러 특징은 창세기 1-3장을 주의 깊게 읽는 독자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중에는 죽음의 끝과 그에 관련된 모든 고통, 생명나무에 있는 물의 가용성, 끝없는 신성한 빛의 임재 등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백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백성에게 완전히 중재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한이 제시한 종말론적 삶에 관해 몇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

결론적으로, 성경적 생명신학을 표현하고 구현하는 것은 종말론적이다 .

의심할 바 없이 요한은 시작된 종말론으로 알려지게 된 것, 즉 미래 자체보다 미래의 현존을 더 강조합니다. 이는 특히 다가오는 시간의 임재는 참된 예배가 더 이상 지리의 문제가 아니며 신자들이 이미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끝없는 삶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께서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영적 변화가 필요함을 가르치십니다.

종말론적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며 그들을 돕는 대리자로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그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다름 아닌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 새 하늘, 새 땅,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미래에 관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의 차이점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Ashton이 말했듯이, 사람들이 내생에서 차지하게 될 자리는 전적으로 현생에서 내리는 도덕적 결정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Ashton의 관점에서, 믿음과 불신의 즉각적인 결과에 대한 John의 강조는 최종 심판을 비종말론화합니다 .

그러나 요한의 생각에 따르면, 요한은 미래를 비종말론 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종말론 화하고 있으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긴급성과 그를 통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의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사실 입니다. 종말론화된 이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요 6:63-68)을 통해 성령께서 낳으신 풍성한 삶(요 10:10)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6, 요한일서 1:1, 5:11, 20.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7:2, 요한복음 20:31.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말씀은 죄로 어두워지는 세상에 있는 어두운 사람들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상을 비추셨던 것처럼 그들을 비추십니다(요한복음 1:1-5, 요한복음 3:16-21 및 기타 본문). 이 생명은 실제로 요한복음 6장 57절과 17장 3절에서 그의 아버지이시며 보혜사이신 예수께서 이미 누리고 계신 것과 같은 종류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일어나든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삶입니다(요 4:23-24). 그것은 사랑의 삶, 예수님과 동료 그리스도 추종자들, 그리고 다른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실제로 요한일서 3:14-16과 비교하여 요한복음 13:34-35에 있는 새 계명 본문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이시며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나누고 보여주신 것과 같은 종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이 순종은 실제로 요한복음 15:10에 따르면 아버지께 대한 예수님의 순종과 같은 종류의 순종입니다. 그것은 동료 신자들과의 연합의 삶,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공유하는 것과 실제로 같은 종류의 연합, 즉 세상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고안된 선교적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7:21-23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살아남는 생명, 즉 마지막 날 부활 이후 죽음 이후의 변화된 삶을 기대하는 생명입니다(요 5:28, 6:40, 6:54). 계시록 2:10-24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은 실제로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과 같은 종류의 삶입니다. 계시록 2:8을 비교하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4-26절에서 예수님의 성찬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신자들이 식탁에 오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과거, 즉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선포하기 위해 나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올 때까지.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날을 더 이상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이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역경스러운 것으로 만듭니다.

미래의 영광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일을 통해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신 것의 무한한 가치가 펼쳐지는 데 달려 있습니다. 아이히텐(Eichten)의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반성할 가치가 있습니다. Eichten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모든 종류의 미래주의적 종말론적 기대에 부여된 중요성의 어느 정도 감소를 수반한다고 말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혁명은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확신이 없다면 복음은 상대적으로 작은 맥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과 요한의 글 전체에 담긴 몇 가지 핵심 사상을 상기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느니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계 5:12). 요한복음 17장을 비교하라.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하나님 나라에 임하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니라.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세션 22, 종말론화된 삶 , 요한의 미래입니다.